

# 호남, S-Oil 인수 수직계열화 완성

## 매입대금 2조원 상회 ... S-Oil은 설비투자 탄력 불구 고배당 불안정

S-Oil의 자사주 매각추진 소식에 증시 전문가들은 긍정론과 부정론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자사주 매각으로 2조원대 현금이 유입됨에 따라 고도화 설비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롯데그룹이 자사주 매입과 함께 공동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고배당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정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S-Oil에 따르면, S-Oil 김선동 회장은 3월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략적 파트너를 찾아 자사주 28.4%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여건이 성숙됐다”고 발표했다.

자사주를 인수하는 국내기업은 전체 지분의 3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Aramco와 함께 공동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유력한 인수후보로는 롯데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S-Oil의 시가총액이 8조4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매각금액은 2조3000억-2조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상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S-Oil은 자사주 매각이 성사되면 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산 2공장 건설 등 고도화 설비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대용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도 “자사주 매각으로 2조원대 자금이 들어오면 현금이 흐름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조언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자사주 매각 자금 유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롯데그룹이 S-Oil의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고배당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영국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자사주 매각이 성사되면 현금흐름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롯데그룹이 인수하면 롯데그룹의 보수적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자사주 매각으로 배당주식수가 늘게 되면 배당금 부담도 확대돼 향후 현재와 같은 고배당 정책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롯데그룹이 유력한 인수 후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 인수 주체로 거론되는 호남석유화학 주가에는 호재라고 조언했다.

현재 롯데그룹은 종합 석유화학기업인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해 롯데대선유화(기초유분), KP케미칼(화학섬유) 등 화학부분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S-Oil을 인수하게 되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된다.

대신증권 안상희 애널리스트는 “2조원대 자금을 투입해 정유기업 경영에 참여할 곳은 현재로서는 롯데그룹 밖에 없다”며 “호남석유화학이 주체가 되고, 롯데쇼핑 등 계열사들이 나누어서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호남석유화학은 현재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Naphtha)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S-Oil을 계열사로 편입하게 되면 자체 조달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 유영국 애널리스트도 “롯데그룹이 S-Oil 자사주를 인수하면 화학사업을 수직계열화할 수 있게 된다”며 “호남석유화학이 화학사업군에서 핵심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롯데그룹이 S-Oil 자사주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롯데쇼핑에 이어 롯데건설 등 다른 계열사도 상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03>